

# 윤상현 처가 푸르밀·아이유 광고제품 ‘불매’… 유통가 날벼락

(국민의힘 의원)

## 후폭풍 일파만파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임명때 ‘굽네치킨 창업주’ 잘못소개, 못매 ‘탄핵표결 불참’ 광규택 의원의 형 광경택 감독의 영화 ‘소방관’ 불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유통업계가 한숨을 놓은 분위기 도 잠시, 탄핵 정국을 계기로 불매 운동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1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가공업체 푸르밀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오면서 윤 의원의 처가로 알려진 푸르밀에 대한 불매 운동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 것.

과거 ‘전두환의 사위’였던 윤 의원은 2010년 신준호 푸르밀 회장의 딸 신경아 씨와 재혼했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소비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가결된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들이 푸르밀의 제품명과 사진 등을 공유하면서 제품을 구매하지 말아달라는 글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푸르밀이 범롯데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롯데그룹 관련 제품으로도 불매 운동에 동참하지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파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유유로 시작한 푸르밀은 롯데그룹에서 독립한 후에도 롯데라는 사명을

쓰다가 상표권 문제가 불거져 2009년 푸르밀로 사명을 바꾼 바 있다.

굽네치킨 역시 이번 탄핵 사태로 못매를 맞고 있다. 굽네치킨 창업주 홍경호 회장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겸 전(前) 국민의힘 의원의 동생으로 알려지면서다.

게다가 굽네치킨 닭을 독점 유통하는 크레치코의 창업주가 홍수석이며, 현재 크레치코는 아들에게

우회 승계한 상태다.

홍수석은 지난달 19일 열린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대통령에게 “누구에게 반성하느냐”고 질문한 것을 놓고 “(기자의 그러한 질문은)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굽네 측은 “정무수석 임명 당시 일부 매체가 그를 ‘굽네 창업주’로 잘못 소개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당시 적극적으로 기사 수정을 요청하지 않아 이러한 오해가 발생했다”며 “굽네 창업주는 홍수석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연예계로도 불매 확산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화 ‘소방관’이 타격을 입었다. 영화 ‘소방관’은 광규택 감독 작품으로, 광 감독은 광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형이다. 광 의원이 윤 대통령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자 분노한 시민들이 영화 관람 불매 운동을 벌인 것이다.

이에 광 감독은 “가족 구성원 중 막내인 광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당론에 따라 탄핵 투표에 불참한 것으로 인해 ‘소방관’까지 비난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말아달라”며 “저 또한 단체로 투표조차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에게 크게 실망하고 분노했다”고 발빠른 진화에 나섰다.

보수성향커뮤니티에서는 탄핵 집회에 나선 팬들을 위해 카페 선결제를 한 가수 아이유를 비롯해 다수 연예인들에게 화살을 겨누고, 해당 연예인이 광고하는 브랜드를 불매하겠다고 나섰다. 하이트진로, 삼다수, 우리은행 등이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개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지갑을 여는 소비가 트렌드인 시대에 구매와 불매는 선택의 자유이고, 이러한 소비 행태 때문에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신경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연좌제 식의 불매운동은 도가 지나치다는 우려도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12·3 계엄 사태의 영향이 불매 운동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어 내수 경기 침체가 악화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억울하게 경제적 손실과 이미지 실추를 당하는 기업과 가맹점주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신원성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증권사, 삼성전자 목표주가 줄줄이 하향

한화투자증권, 9만원→7만3000원 주가 하락요인 상당부분 이미 반영 밸류에이션 매력은 ‘유효’ 평가

‘미국발 반도체 훈풍’에도 삼성전자의 주가 회복세가 더딘 모습이다. 반도체 실적 부진과 탄핵 정국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이어지자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 후에도 외국인은 단 두 차례만 순매수를 기록했으며, 지난 17일 기준으로 9거래일 동안 9101억원어치를 매도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부진이 예상되며 목표주가를 속속 낮추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11월 들어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 9개 증권사 중 8곳이 목표주가를 낮췄다. ▲NH투자증권(9만원→7만5000원) ▲한화투

자증권(9만원→7만3000원) ▲키움증권(7만5000원→7만3000원) ▲유진투자증권(8만원→7만7000원) ▲BNK투자증권(7만6000원→7만2000원) ▲다올투자증권(9만3000원→7만7000원) 등이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하향했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이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며 “올 4분기 영업 환경은 전반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증권가에서 목표주가를 낮추는 이유는, 최근 미국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상승에도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에서 뚜렷한 고객사 확보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광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도 D램과 낸드 시장의 수요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메모리 가격 하락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주가 하락 요인이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밸류에이션 매력은 유효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당장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등락이 예상되며,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이벤트 불확실성이 해소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한국 증시는 12월 FOMC, 마이크론 실적, BOJ 통화정책회의, 미국 경제지표 등 매크로와 펀더멘털 이슈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이날은 외국인인 16일만에 순매수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외국인인 삼성전자 주식 74만7338주를 순매수했으며, 종가 기준으로 추산하면 412억원가량을 사들였다. 이에 삼성전자는 장중 5만 4000원까지 떨어졌으나 반등하며 700원(+1.29%) 오른 5만4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탄핵 뉴스 OTT로 본다… 실시간 중계 시청 ↑

웨이브, 탄핵표결 라이브 시청 2배 예능·드라마 등 시청자는 줄어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뉴스 시청이 급증하면서 실시간 중계를 제공하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시청량이 급증했다. 다만 예능, 드라마 등 시청자가 감소하면서 전체 방문자는 줄었다.

18일 웨이브에 따르면 탄핵표결이 있었던 지난 주말(14일~15일) 라이브 시청량은 평소 주말 대비 2배 수준 늘었다. 이는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6일과 7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까지 웨이브가 중계한 지상파·종합편성·보도채널 뉴스 콘텐츠 시청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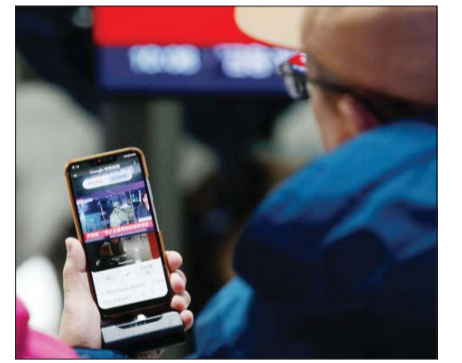
OTT는 최근 실시간 방송을 확대하고 있다. TV 대신 스마트폰 이용 빈도가 급증하면서 OTT, 유튜브 등으로 뉴스, 스포츠 등 실시간 콘텐츠를 이용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인 지난 4일 지정 전후로는 웨이브의 라이브 채널 유저 트래픽이 평소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바 있다. 이후에도 라이브 채널 이용량이 평소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티빙 역시 지난 14일 인기 톱 20위 콘텐츠 가운데 상위 5위 내에 채널A 뉴스특보와 JTBC 채널이 올랐다.

다만, 뉴스를 보는 시청자들이 늘어나면서 전체 OTT 방문자 수는 감소했다. 드라마, 예능 등 시청이 줄어들었다.

이날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넷플릭스 일 순 방문자 수(DAU)는 비상계엄 선포 전인 1일 271만 9519명에서 선포일인 3일 249만3372명으로 약 8% 줄었다.

그 다음 날인 4일에는 238만2528명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해제한 지난 4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도착장 대합실에서 중화권 이용객들이 계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으로 전날보다 2만명 가량이 덜 방문했다. 티빙 방문자 수도 1일에는 146만 9374명에서 4일에는 142만5132명으로 소폭 줄었다.

쿠방플레이는 감소 폭이 더 컸다. 1일 87만8767명을 기록했던 일 순 방문자 수는 비상계엄 선포일인 3일 68만 9387명으로 약 22% 감소했다. 웨이브는 같은 기간 115만173명에서 107만 3479명으로 떨어졌다.

이 밖에 디즈니 플러스는 1일 38만 5090명에서 3일 31만5496명으로 방문자 수가 약 19% 줄어들었으며 왓챠는 1일 6만8605명에서 3일 6만475명으로 약 13% 감소했다. 웨이브는 같은 기간 115만173명에서 107만3479명으로 떨어졌다.

반면 뉴스 시청율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스코리아에 따르면 지상파 주요 뉴스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이달 1일 3~6%대 수준을 기록하다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에는 5~11%대로 늘었다.

한편,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이후로 OTT 방문자 수는 대체로 회복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행안부, 내수진작·체감경기 개선 총력

소비·투자 분야 재정집행 적극 추진

정부와 지자체단체가 탄핵 정국 등 어려운 국경 여건 속에서도 지역 내수 진작과 서민 체감 경기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7개 광역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지역 내수 활성화를 각 지자체에 당부했다.

우선 각 지자체와 지방 공공 기관은

단체장 중심의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연말까지 소비·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 집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계획한 축제·행사 및 연말 부서 송년회를 정상 실시하고, 대규모 투자 사업의 기성금과 준공금을 연내 지급하는 등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 요금의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등 적극

적인 지역물가 관리를 당부했다.

인상 절차가 진행 중인 요금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결정 등의 절차를 순연하고, 인상이 확정된 요금은 감면제도 등을 활용해 실제 인상 시기가 연기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와 함께 서민 체감 경기 회복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지역경제 소비진작 특별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대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수 사례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매달 지자체의 행사·축제를 모아 통합 홍보할 계획이다. /뉴스1